

濟州方言에서의 「ㅇ」考

立 容 駿

차 례

- 一. 머릿말
- 二. 濟州方言에서의 使用實態
- 三. 考 察
- 四. 附錄 (古典의 解釋)

一. 머릿말

國語學研究에 있어서 方言의 研究는 文獻語研究나 또는 比較言語學的研究와 마찬가지로 重要的 것임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方言中에도 特히 濟州方言은 그 價値가 높고 불리우고 있으며, 이는 濟州道가 政治 經濟 文化의 中心地인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四面 滄海라는 地理的 關係로 言語改新波의 影響이 稀薄하여서 古語 保存이 濃厚한 까닭이다. 事實, 濟州方言에는 十五世紀 文獻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옛말들이 수두룩히 볼 수 있으니, 이 方言을 잘 開拓한다면 古典 解讀의 完璧에는 勿論 上古語의 再構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上古語 再構의 基礎課業으로서도 方言研究가 緊要한 現實이기, 그 一端을 끌추어 봄은 論旨의 正否를 問題外로 삼고라도 無意味한 徒勞는 아닌상 設어, 濟州方言에서의 一現象을 놓고 살펴 보고자 함이, 이 小論을 엮는 意圖다.

濟州方言의 세 다른 點은 하나 물이 아니겠는데, 그 中の 하나

로서 『ㅇ』音節을 가진 말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을것이다. 一
 例를 들면 「개똥이 아뵤이 할망게 집의 강 밥 먹곡 누영 자당, 널
 땅 놀곡 후영 오뵤 후영게」(개똥이 아버지가 할머니께 집에 가
 서 밥 먹고 누어 자다가, 내일만 놀고 해서 와라고 하던데。)라
 는 말이 全文 十四個 語節로 構成되었는데 그 中 十個 語節이
 『ㅇ』音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例가 일부터 『ㅇ』發音 語節만을
 뽑아서 엮은 것이 아니라 言衆이 日常生活에서 어떻게 귀에 쟁쟁
 울리는 流暢한 語調로 말하고 있어 濟州方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이내 이 現象을 느끼게 한다. 拙考는 『ㅇ』發音이 많은 이 現象을
 어떠한 音韻論的 結果인가를 考察하고, 이것의 應用으로써 古典解讀
 에 도움되는 바를 몇個 試圖하여 덧붙이려 한다.

이 方言에서의 『ㅇ』의 音價는 他道의 그것과 全然 同一한 것임
 으르, 이를 仔細히 考究하는 것은 蛇足이 되겠으므로 本論에서 省
 略하기로 한다. 곧 그 音價는 訓民正音에서 「如業字初發聲」이라 規
 定하고 『ㅇ』으로 表記하여 오다가 宣祖때부터 『ㅇ』으로 그 字態가
 變換듯한 軟口蓋 通鼻音 『ㄱ』인 것이다.

二. 濟州方言에서의 使用實態

ㅇ音의 使用 實態를 보는데는 名詞, 形容詞 副詞等에 쓰이는 것
 과 語尾活用 및 助詞에 쓰이는 것으로 分類하여 살펴볼 功績이 좋겠다. 그
 使用의 例를 各々 들어 보면

1. 名詞에서

名詞에서의 『ㅇ』은 語彙 末音인 것과, 語彙 中間에 挿入된 것으
 로 分類하여 볼 수 있다.

a 語彙末音인 『ㅇ』

바당(海) 땅(地) 고방(穴) 아뵤(父) 어뵤(母) 하모뵤(祖父) 할

망(祖母) 그랑(溝) (평습) 그랑(花) 낭(木) 등*

B 語彙中間에 挿入된「ㅁ」

○ 돌맹이(石) 물맹이(蝸牛) 굼맹이(깨조) 곰맹이(곰팡) 경이(蟹)
고맹이(猫) 담쟁이(벽해) 그랑쟁이(溝) 공중이(실술) 끝맹이(尾)
뚜쟁이(蓋) 비맹이(頭) 돌맹이(石)

○ 조쟁기(蛤) 구쟁기(구) 들쟁기(小石) 잎쟁기(葉)

○ 송애기(송아지) 뭉쟁이(망아지) 장쟁이(장아지) 병애기(병아리) 등

2. 語尾活用 및 助詞에서

ㄱ, 疑問終止形語尾

○ -수강? -수광? (입니까? -비니까?)

갔수강? = 갔수광? (갔읍니까?) 감수광? (가고 있음니까?)

불수강? = 불수광? (불습니까?)

○ -(이)우광? -(이)우광? (-입니까? 비니까?)

감이우광? = 감이우광? (가고 있음니까?) 개우광? = 개우광? (개

입니까?) 불우우광? = 불우우광? (불습니까?)

○ -쿠강? -쿠광? (-졌읍니까?)

가쿠강? = 가쿠광? (가졌읍니까?) 불으쿠강? = 불으쿠광? (불졌

읍니까?)

ㄴ, 敘述終止形語尾

○ -ㅇ게(-나대)

강게。(가던대.)

감성게。(가고 있는대.)

책임게。(적인대.)

불을게。(불은대.)

ㄷ, 連結形語尾

a. 羅列形

○-양, -영(-아(서), -어(서), -고(서))

결양갔수다。(결어서 갔읍니다。)

차 탕 가쿠다。(차 타고 가겠읍니다。)

불영 어땡 허여。(불어서 어떻게하나。)

과 두영 왔수다。(넣어 두고 왔읍니다。)

걸어 두영 가라。(걸어두고 가거라。)

○-몽-멍(-며, -면서)

놀몽 가라。(놀면서 가거라。)

가몽 말몽 허엿수다。(가며 말며 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멍 책 익엄저。(밥 먹으면서 책 읽고 있다。)

고몽 말몽 후다。(고우며 말며 하다。)

b. 意圖形

○-쟁(-자(고))

가쟁 홉대다。(가자고 합디다。)

먹쟁 한다。(먹자고 한다。)

오쟁 말라。(오자고 말아라。)

○-고쟁 (-고자)

가고쟁 홉대다。(가고자 합디다。)

먹고쟁 허여라。(먹고자 하여라。)

보고쟁 할거야。(보고자 할거야。)

c. 中斷形

○-당(다가, -닥아)

빗듬 불 당 비 읍베다。(바람 불다가 비 읍디다。)

가당 오당 만난다。(가다 오다 만난다。)

앗아당 뗏겨 불라. (가져닥아 던져 버머라.)

d. 連 體 形

○-ㅇ(-ㄴ)

진 더러운 거우다. (그것은 더러운 겁니다.)

아니 먹어 봉게 웃다. (아니 먹어 본 것이 없다.)

지 희여 농걸, (겨우 해 는 것을.)

e. 目 的 指 定 格

○-랑-르랑 (-란-르란)

이결랑 느 먹꼭(이것이란 게 먹고) 저거랑 봐 두라.

(저거란넣어 뒤라.) 날랑 가렝 후만 (날란 가라고 하면)

없음이랑마랑하경 싯저.(없음이란 말고 많이 있다.)

f. 引 用 格

○-잉(-고)

이결 책이엿 후게.(이것을 책이라고 하게.)

골 간명 후비다.(골간다고 합디다.)

널랑 오렝 후라.(베일란 오라고 해라.)

어디 감수경 후난 (어디 가실니까고 하니까)

g. 與 同 格

○-영 -와, -과, -하고)

느영 나영 가게.(너와 나와 가지.)

책이영 붓이영 앓아 오라.(책하고 붓하고 가져 와라.)

h. 比 較 格

○-랑(-와, -과)

그 사람랑 다르냐? (그 사람과 다르냐?)

이것랑 저것랑 보라.(이것과 저것과 보라.)

느팡 난 물린다。(너와 나는 물린다。)

3. 形容詞其他等에서

과랑후다(과랑다) 푸리롱후다(과로스름하다) 벌경후다。(밤알다) 불구롱후다(불으스름하다) 짓노랑후다。(짓노랑다)

쌈수롱후다(쌈쓸하다) 째찌롱후다(짜질하다) 메오롱후다 (메쓸하다) 코소롱후다(구수하다) 등 용(이렇게) 저영(저렇게) 아명(아무렇게) 그냥(그대르) 저냥(저대르) 이냥(이대르)等々
一一히 枚擧할 수 없이 많으므로 簡單한 例로 끝는다。

三. 考 察

위에서 몇개의 例로써 그 片貌를 밝힌바, 이제 個別的으로 檢討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名詞에서

a. 語彙末音의 『ㅇ』

言語는 歷史的 事實이다. 오늘의 濟州方言에 있어 名詞末音으로 ㅇ음이 많이 붙은 이 現象도 偶然한 事實이 아닐 것이니, 于先 通時的인 考察을 爲하여 古語와 比較해 보고저 한다.

新 羅		高 麗		李 鮮 前		李 朝 後		濟州方言
語휘	實例 文献	語휘	實例文献	語휘	實例文献	語휘	實例文献	
따 ? 地	此地홀捨遣 只(安民歌)	다? ? 따? ?	地 大 華夷譯語	따	어미간따홀 므며(月印)	따	(字會)	땅
꽃 ? 花	花홀折叱可 (献花歌)	꽃? ? 꽃? ?	花曰骨 (類事)	꽃	꽃 도코 (龍歌)	꽃	가을고지 드리엿고 (杜解)	고장

말 의 巷	蓬次叱巷中 蓬竹旨郎歌		말 형	말리에 무를 디내작 (龍歌)	말 형	(字會)	말형 구형
무 ? 窟	肅理大窟 (安民歌)		구 무 窟	구무바회 (龍歌) 窟은 구기라 (月釋)	구 무	(字會)	궁기 고망 고냥
	남?	木日南記 (類事)	남	불휘기른 남근(龍歌)	나 모	(字會)	냥
			바 돌	바르태가는 너 (龍歌)	바 다	(字會)	바당

少數의 例이나 위에서 보면 接尾素「○」이 添加되어 發達되었음을 于先 눈에 띠이게 된다. 그런데 ○接尾素가 까닭 없이 불을 理 없을 것이니, 그 理由로서 다음의 두가지를 于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땅, 바당等を 불때 이들이,

極樂간 따홀 어를 보는디니 (月印第八, 八)

나모 울 잠개여 바다홀 굶어보니 (關東別曲)

와 같이 助詞를 取하는 名詞인 것이다. 그래서 이 名詞들이 ○末音을 갖고 있음은 助詞의 影響이라 생각 되는 것이다. 一例로서 「지붕」이란 現行語를 보면 「집」(家)과 「우」(上)의 合成語 이었는데 「우」(上)가 助詞를 取하여

개 모와 아라우히 다 큰 부러이든 (月釋一)

와 같이 되는데, 이 「지붕」도 ≽집우층≽의 ㅎ이 ○으로音變하여 斷續에 붙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니 ≽땅≽ ≽말형≽ ≽바당≽도 마 관가지도

따래→땅 말리해→말형 바다해→바당의 變으로 보아진다. 이 ㅎ이 助사의

ㅎ이나 休言末音의 ㅇ이나에는 異論이 있으나 (本論에선 ㅎ助사라고 쓰겠음) 어디에 붙은 ㅎ이었던 間에 ㅎ의 變입은 틀림이 없으리라 본다.

위의 例에서 一見 ㅎ助사를 取하지 않은듯한 것으로 「고장」이 있으나 이모 亦是 ㅎ變입 것이다。現行語는 「꽃」이나 文獻에든
꽃 도코 여듬 하느니 (龍歌二章)

다차 꽃 두 고지 空中에 머물어늘 (月印一, 四)

와 같이 「꽃」「고지」로 되어 있고, 또
저비는 누는 고췌 박차 (杜謠十五)

와 같이 「고췌」로도 되어 있으며, 더 遡及하여 보면 鄉歌의
花勝 折叱可의 勝이ク吾勝 此地勝 二卷隱과 같이 ㅎ助詞
를 取하는 名詞와 同一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꽃」의 語幹과
助詞와 關係는

꽃히 꽃홀 꽃헤

이었던 것이라 볼 것이며, 이리므로 濟州方言의 「고장」도 亦是 ㅎ
의 變이라 할 것이다.

그대서 名詞末音의 ㅇ은

굴러헤→ 굴형에→ 굴형

따홀→ 땅을→ 땅

집우히→ 집웅이→ 지붕

바다헤→ 바당에→ 바당

과 같이 ㅎ→ㅇ이 音轉이라 볼 것이나 여기 一考해야 할 것은
ㅎ→ㅇ의 直接의 音轉이 아니라 ㅎ音은 脫落이 쉬운 音이므로 ㅎ
脫落으로 生成한 Hiatus로 말미아마 ㅇ이 插入 發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點이다. 곧,

바다해 → 바다에 → 바닷에

따올 → 따울 → 땅울

로 놀이 더 나을는지 모른다.

물제로 ㄱ의 音轉을 생각할 수 있다.

方言에서의 낭(木) 고망(痛) 등이 文獻語로는 「남, 굶」으로 되어 있어, 남 굶의 ㄱ이 ㅇ音轉하여 된것이라 할 수 있다.

掌 손바닥 (萬曆千字)

伊洛을 손사바닥 그라치듯 (杜諺一, 八)

손바닥 → 손바닥뿔의 例인데, 이와 같이 軟口蓋破裂音 ㄱ이 軟口蓋通鼻音 ㅇ으로 轉함은 自然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런데 위의 例의 굶기 굶글 굶기 등은 各히 主, 目的, 方位格이요 그 原形은 「구무」乃至 「굶」뿐이다. ……이 突然히 出現하는 ㄱ의 本質은 「ㅎ」의 轉이다. 「ㅎ」음은 古音엔 거의 「ㅅㅅ」音에 近하게 強하였으므로 「ㅇ, ㄴ」민희 「ㅎ」가 音便上 「ㄱ」으로 轉한 것이다. 이것은 「담, 심 굶」(盛, 植, 沉)等 諸用言에서도 同然하다.

굶히-굶기(穴) 감히-감기(纏)

남히-남기(木) 안히-안기(抱)

넉히-넉기(他) 담ㅎ-담그(盛)

무스히-무스기(何) 심ㅎ-심그(植)

(梁柱東 古歌研究 P 二七四)

이렇다면 ㄱ→ㅇ의 音轉도 ㅎ→ㄱ→ㅇ의 音轉으로 歸納될 것이다.

이를 確實히 하기 爲하여 他通方言을 一覽할 必要가 있다.

바다(海)

原形 바다(바다)系

바다 多地方

마대 全南 全北 慶南 忠南 各一部

原形+ㄱ系

마닥 全南 慶南 各一部

原形+ㅇ系

비당, 濟州

(小倉進平, 朝鮮語方言의 研究에서 分類는筆者)

구무 굽(穴)

原形 (구무 굽) 系

구무 慶北一部

궁기 咸南 全南 各一部 濟州

궁계 咸南北

原形+ㄱ系

구덕 全南北 忠南北 京畿 各一部

구덕 全南北 慶南 忠南北 京畿 各一部

原形+ㅇ系

구명 全南 慶南 忠南 京畿 黃海 咸南 各一部

고망 濟州

구녕 慶南北 忠南北 江原 黃海 咸北 各一部

고냥 濟州

구영 慶南北一部

구녕 平南北一部

구냥 慶南北一部

구냥 咸南一部

궁강 咸南北一部

궁강이 慶南北 江原一部

(前出書 同)

이와 같이 原形에 「ㄱ」이 붙은 系列과 「ㅇ」이 붙은 兩 系列로 分類된다. 이 名詞들이 ㅎ 助詞를 取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밖으로 이는 위에서 論한바와 같이

바다에 - 바다
 바다ㅎ에 바바ㄱ에 - 바닷
 바다ㅇ에 - 바닷

이와 같은 分布이다.

그때서 濟州方言 名詞末音의 「ㅇ」은

ㅎ ㄱ-ㅇ
 zero-ㅇ

의 兩系의 過程은 거쳐 된 것, 곧 「ㅎ」音의 影響이라 할 것이다.

b. 語彙中間에 挿入된 「ㅇ」

語彙中間에 挿入된 「ㅇ」을 考察하는 때는 다음, 古語와의 比較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三形態로 나누어 살펴 수 있다.

1. 原辭+ㅇ이型

이명이 額 (古語 너마, 字會)

물명이 蝸牛 (〃 물판기, 字會)

곰명이 蜻螳 (〃 곰명訓解)

고명이 猫 (古語 꺄, 字會)

조개가 蛤蜊 (〃 조개 字會)

2. 原辭+ㅇ기型

입쟁기 葉 (古語 뇨 龍歌)

조쟁기 蛤蜊 (〃 조개 字會)

3. 原辭+기型

입쟁기 葉 (古語 뇨 龍歌)

조쟁기 蛤蜊 (〃 조개 字會)

첫째, 原辭+ㅇ이型的 成語는 他道 方言에도 많이 볼 수 있으나 濟州方言에 특히 많은 것 같다. 계(蟹)의 方言을 살펴보면

거이 京畿 黃海 咸南 平南北 各一部

계 全南北 慶南北 江原 咸南北 各一部

귀이 平北一部

괘 忠南一部

끼 慶南北一部

기 全南北 慶南北 忠南北 江原各一部

끼 京畿 黃海 各一部

강이 濟州

궁이 濟州

갱이 濟州

갱이 全南北一部

이와 같이 大概가 「거이」 原型인데 「강이 궁이 갱이 갱이」로 되어 있다. 이는 「거이」의 hiatus 忌避를 爲한 ㅇ의 挿入임을 推 斷할 수 있다. 이들 「-+ㅇ이」型的 語辭의 大部分은 「-이」添尾가 붙어 構成된 語辭로 이에서 生成한 hiatus를 막기 爲하여 ㅇ이 挿入된 것 이라 봄은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中 궁병이(鱗鱗)부엉이(鵞鴞) 등은 本來 ㅇ末음을 가진 語辭 곧 「ㅇ이」가 本來 語根인 것이라고 보아 「이添尾」가 語根에 固定 附着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부엉(鵞鴞) 訓正 - 부엉이

궁병(鱗鱗) * 궁병이

울창(鵞鴞) * 울창이

다음 原辭+ㅇ기型, 原辭+기型을 考察하기로 한다.

이런형의 成語를 다른 方言에서 찾아 보면

꼬리(尾)

原型系

꼬리 多地方

끝미 多地方

종대 慶南 嶺南各一部

종지 全南北 慶南北 忠南北 京畿 江原 黃海 嶺南 各一部

原型+기系

종대기 慶南北一部

꼬랑대기 慶南北 咸南各一部

原型+ㅇ系

꼬령기 咸南

꼬령지 平北一部

끝랑지 濟州 咸南一部

꼬랑지 全南北 京畿 黃海 咸南各一部

原型+ㅇ이型

꼬령이 濟州

꼬랑이 黃海一部

꼬랑녕이 全南北 慶南北 忠南北 咸南 各一部

종녕이 全北 江原 嶺南 平南 各一部

궁피ㅇ이 慶南一部

(前出書同)

이러한 四形態의 分布를 보게 된다.

여기의 一+기系은 「一+ㅇ이」 系의 「ㅇ」이 hiatus에서 挿入된 것
과 같이 同-하게 볼 것이다. 곧

손사바닥을— 손바닥을(掌)

구멍이-구멍이(穴)

와 같이, ㅇ이 同口개음이므로 互轉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본다. 다음 「-ㅏㅇ기」형은 「-ㅏ기」형과 「-ㅏ이」형과의 類推現象에서 生成한 것이라 볼 것이니 例하면 「조경기」가 「조경이」와 「조개기」의 類推에서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이 外에 「송애기」(牛兒) 「빙애기」(鷄兒) 「몽쟁이」(馬兒) 등의 「ㅇ」이 있는바 이도 亦是

쇼아지-쇼ㅇ아지-송아지 (쇼ㅇ아지득 積 字會上)

망야지-망ㅇ아지-망아지(망야지구 駒字會上)와 같이 純粹한 hiatus 忌避의 ㅇ插入인 것이다. 이제 덧붙여야 할 것은 이 hiatus 以前 語辭의 再構이겠는데, 이 問題는 文獻의 貧弱으로 매우 어려운 課題일 것이다. 이 hiatus의 生成은 ㅁ, △等 子音의 脫落으로 生成할 可도 많이 본다. 現 黃海 平安道

等地 方言에 가이(犬) 거이(蟹) 꼬이(猫) 사이(鳥) 마이(鷹) 등이 있는데, 이가 古語形의 殘影임은 누구나 認定할 것이며, 이들이 收約되어 개, 거, 괴, 새, 매, 모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ㅎ音의 脫落으로 이루어진 것인 듯 하니

가히(犬) 月經 字會- 現代語 개 조히(紙) 字會- 現代語 종이
아히(兒) 字會- 現代語 아이 에

와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이때서 「조개」의 原辭를 조가히-조가히로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을 例로써 위의 三形態의 關係를 圖示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조경이→
조가히 ↑ 조경기
→조개기→

以上을 綜合한다면

名詞의末音ㅇ은 ㅎ의 影響에서,

中間挿入ㅇ은

Hiatus 現象으로 因해서,

ㄱ, →ㅇ의音轉에서,

●末音 語辭에 이添尾가 附着된 것等으로 이루어진 現象이라 하겠고, 또 이 ㅇ이 語調에 있어 聲調流麗作用을 하고 있다 하겠다.

2. 語尾活用 및 助詞에서

ㄱ 疑問終止形語尾

濟州方言의 疑問終止形에 「ㅇ」接尾가 붙는 것으로는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수강? = 수광—(이)우광? = —(이)우광?

—쿠강? = 쿠광?

이 있다. 수강?과 수광?은 聲調 같은 뜻으로 「수」의 圓唇性의 影響으로 「강」이 「광」으로 된 것이며, 「우강?」과 「우광?」, 「쿠강?」과 「쿠광?」도 마찬가지다. 「수강?」과 「우광?」은 또한 同意로 極尊稱인데 「수강?」은 動詞 形容詞의 過去와 現在에, 「우광?」은 名詞 形容詞 動詞의 現在에 「쿠강?」은 動詞 形容詞의 未來 極尊稱에 쓰인다. (例, 使用實態項 參照) 이것들은 標準語의 「입니까?」 「졌습니까?」에 對應되는데 어느것이나 共通的으로 「가」에 「ㅇ」이 덧붙여 있는 것이다. 現在의 使用實態를 보면 이 接尾ㅇ은 때때로 「수가?」 「우까?」 「쿠까?」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때도 語法關係는 다름이 없다. 그럼으로 이 「ㅇ」은 묻는 말 끝을 強調하기 위한 強勢作用과 聲調流麗作用으로 말미암은 것 같다. 이 ㅇ接尾現象이 他道方言에도 볼 수 있으니

慶尙道 -강? -이강? -공?

咸鏡道 -강? -강? -우강?

黃海道 -강이?

等 주로 南方系 方言에 많은 상 있다.

正音으로 表記된 李朝文獻에는 이러한 疑問形이 보이지 않으나 然
여室記述 卷三 孟思誠(1360-1431A D)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公自溫陽還朝, 中路遇雨, 入龍旅院, 有一 人기從甚盛, ……是嶺南人欲
爲錄事取才上來者也。見公招與談笑博戲, 且約以公字堂 字爲問答之言終。

公問曰何以上京乎公 其人曰求官上去堂。公曰何官公。 其人曰錄事取才
堂, 公曰我堂差除公。其人曰하, 不堂。後日政府之座, 其人以取才入謁, 公
曰何如公。其人始覺之, 遽曰死去之堂。一坐驚怪, 公以實語之, 諸宰大笑。
公遂以爲陪錄事。後人稱之爲公堂問答。

公, 堂으로 對話를 한 것으로 보아 -공? (公)-당(堂)이 確實하겠는
데 이 말이 嶺南人의 말이고 보니 李朝初에도 南方系方言에 이 現象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要는 南方계方言의 聲調에 基因하는 強
勢와 聲調流麗에서 이러한 現象인듯 하다.

ㄴ. 叙述終止形語尾

一〇계形으로

강계(가던대) 감성계(가고 있는데)

책인계(책인대) 붉은계(붉은대) 등과 같이 쓰이는데 「간계, 감신계, 책
인계 붉은계」와 같이 「ㄴ계」形으로도 쓰인다. 이는 「ㄴ계」形이
原形이고 「〇계」가 되는 것은 ㄴ계 的 기으로 因한 子音同化現象이
다.

ㄷ. 連結形語尾

a. 羅列形

「-양, -앙」과 「-몽-명」 두形이 있어 「ㅇ」이 語法關係로 보모
 하게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時間的 羅列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동나은 空間羅列形에도 쓰인다.) 이를 좀 자세히 살펴 보면

두가지 動作을 同時에 하는 꼴을 보이는 同時羅列形에, 곧 標準
 語의 (으) 며, (으) 면서에 對應되는 것으로 -몽-명이 있어
 밥 먹으명 책 익나. (밥먹으면서 책읽는다.)

노래우몽 일한다. (노래하며일한다.)

와 같이 쓰이며 두가지 以上の 動作을 차례 차례 하여 감을 보
 이는 順次羅列에는 -양, -양形이 쓰인다.

먼저 同時羅列形부터 考察하기로 한다. 이 同時羅列形 -명-몽은
 意圖形이나 引用格 처럼(뒤에 詳論) 나뭇이나 或은 다른 響과 混
 用하는 일이 全然 없고 一部 老人들은 「-명」을 쓰고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어, 이는 干先 聲調流麗添尾로 볼 수 있다. 곧

이말음이 이店 밭기 나명 클명 (雙花店)

으명 가명 ㅎ거문 (陶山十二曲)

등의 殘影인듯 하다. 그런데 이들 文獻語의 註釋들은 大概聲調를
 流麗케 하기 爲한 添尾素添加라고 하고 있으나, 濟州方言의 現象으
 로 미루어 보면 「-명」이 한 덩어리의 어미로 붙지 한 것이다.
 濟州方言에 있어 言象들은 이 -몽 -명을 무와ㅇ, 머와ㅇ으로 分
 離하여 全然 意識치 못하고 하나의 語尾活用으로만 意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學者的 頭腦로서는

語幹+現在進行口+連体形+聲調添尾의 型으로 分析할 수 있겠지
 만.

濟州方言에서의 現在進行形을 만드는 것은 「ㅁ」이다. 감수다 (가고
 있습니다)

잡저(가고있다) 잡다 (가고 있다)와같이.

다음, 順次羅列形에 一양, 一영이 쓰인다 함은 위에서 말했거니와
이中 完了함을 보이는 것은 ㅇ이 ㅂ으로 바꾸어

밥 먹엉 왔저, = 밥 먹언 왔저.

밭 갈앙 왔저. = 밭 갈안 왔저.

와 같이 混用하여 同意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完了羅列은
語幹+連用形+既然表示의 ㅂ

이 原形인 ㅂ이 ㅇ으로 俗音化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未來, 方法羅列形은 ㅇ이 ㅂ으로 바뀌면 그 뜻이 아예와
같이 아주 달버겨버린다.

책 가정 가라. (책 가지고 가거라)未來

책 가전 가라. (책 가지고 가더라)過去

차 탕 가라. (차 타서 가거라)未來

차 탄 가라. (차 타서 가더라)過去

쉬영 가라. (쉬여서 가거라)未來

쉬언 가라. (쉬여서 가더라)過去

ㅂ은 간봄(去春) 푸른 하늘(青天)과 같이 既然을 表示하므로 여기
서도 過去가 된 것이겠으나 「ㅇ」이 未來를 나타낸다는 것은 理解
하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ㅇ이 本來的인 'ㅇ'인가? 아닌가를 생
각할 必要가 있겠다.

위의 名사의 考察에서 ㅂ→ㅇ의 音轉을 論했거니와 이 羅列形에서
의 ㅇ도 ㅂ→ㅇ의 音轉이라 봄이 어떨까 한다.

文獻에보면

에 子細히 소망하야, 哀慕를 忝히 말라(蒙嚴經 卷二)

그夫를 주야 ㅂㅅ를 써 (蒙山法語略錄三)

어두워기 空이 ㅎ의야 (동嚴經 卷二)

等 所謂 強勢辭「기」이 있는데 이를 濟州方言으로 고쳐 보면

네 子細히 사랑ㅍ용...

그夫를 ㅍ용.....

어두워기 空이되여.....

와 같이 ㅎ으로 바뀌어 같은 뜻이 되는데서 그렇다 생각되며, 또 한가지는 濟州方言에서 이 ㅎ代身「-근」「-그네」를 代置해서 開聲도 通用되고 있는 点이다. 곧

책 가정 가라. = 책 가져근 가라.

차 당 가라. = 차 타그네 가라.

쉬영 가라. = 쉬여근 가라.

와 같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그렇다고 믿는 바이다. 이러면 古語의 ㅍ약 ㅍ곡 濟州方言의 ㅍ용, ㅍ곡, ㅍ용근, ㅍ용그네와 現行標準語 ㅍ하고, ㅍ고서 ㅍ가 다음과 같이 對應되는 子音公式을 찾을 수 있다.

h-k- ㅍ약.....古語

h-k- ㅍ하고.....現代語

h-k-k ㅍ곡.....古語

h-k-s ㅍ고서.....現代語

h-ㅇ ㅍ용.....濟州方言

h-k-k ㅍ곡 濟州方言

h-k-n ㅍ용근.....濟州方言

h-k-n-ㅍ용그네.....濟州方言

여기 덧붙여 두고 싶은 것은 文獻에의 「사랑ㅍ약, 그夫ㅍ약」

鶴 가던디 다가곡 (杜謔二〇, 一三)

남갈 더위 잡곡 (杜諺十九, 二七)

등의 ㄱ ㄱ ㄱ ㄱ 을 強勢添尾素 ㄱ ㄱ 의 添加라 볼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以上 未來 方法을 보이는 順次羅列形 「ㅇ」이 「ㄱ」의 音轉입을 衒했는데, 이 「ㄱ」이 未然的인 機能을 가졌음은 國語의 未來時相 補幹과 連關되는 問題로 앞날의 宿題가 되겠으나 몇가지 힌트되는 點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濟州方言의 未來時相이 「-쿠-」인 點。 곧 가쿠가? (가졌읍니까?) 가쿠다(가졌읍니다)와 같이 「ㄹ」外에 「ㄱ」이 있는데 이 「ㄱ」은 ㅎ+ㄱ의 合音이겠으니 ㄱ이 未來時相을 表示하는 것 같은 點。

2. 未來時相補幹 -리-가 現代語에 -겠-으로 交替되었는데 이 「겠」의 「ㄱ」이 連關이 있다고 느껴지는 點。

b. 意圖形

標準語의 -자(고)에 該當하는 것으로 「-쟁」을 쓴다.

가쟁 흙베다. (가자고 합더다.)

먹쟁 준다. (먹자고 한다.)

보쟁 말라, (보자고 말아라.)

와 같이 方言의 -ㅇ과 標準語의 -K-(쟁=자고)의 對應을 이루고 있다. 이 意圖形도 羅列形과 마찬가지로 過去의 意圖事實을 말할 때는 ㅇ으로 混用하고 未來의 意圖를 말할 때는 ㅇ으로 어감 없이 發音한다.

過去 가쟁 흙베다.

現在 가쟁 준다.

가쟁 준다.

未來 가쟁 말라.

와 같이 되어 羅列形에서 考察한 바와 같다. 文獻語에는 이 ○
이다 ㄱ 添미가 보이지 않고

아소 남하 줄대 너짓 期約이다(履霜曲)

와 ㅅ 添尾가 보인다.

이 「-경」을 分析하여 본다면

願望助動사 지 의 連用形+○型이다.

다음 「-고정」이 있는데 標準語의 「-고자」와 같은 것으로

가고정 ㄱ어라. (가고자 하여라.)

먹고정 ㄱ다. (먹고자 하다.)

보고정 ㄱ거라. (보고자 할거야)

등과 같이 「○」음이 變함이 없다.

「接續助詞고 + 願望助動詞지의 連用形+○의型이다.

c. 中斷形

「-당型」으로 標準語의 「-다가」와 같은것이다.

過去の事實을 表現할 때는

놀당 왔수다=놀단 왔수다. (놀다가 왔읍니다.)

부름 불당 비읍페다.=부름 불단 비읍페다.(바람 불다가 비읍
페다.) 와같이 ㄴ을 混用하고 있으며

未來의事實을 表現할 때는

놀당 가라.(놀다가 가거타.)

편지 앞당 부져라.(편지 가져다 부쳐라.)

와 같이 ○음이 變함이 없다.

이도 또한 ㄱ→○의 音轉으로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다.

d. 連體形

건 더러웁 거우다.(그것은 더러운 겁니다.)

아니 먹어 봉게 웃다. (아니 먹어 본것이 없다.)

지 허여 농결(겨우 해 놓은 것을)

와 같이 쓰이나 大部分의 連體形은 ㄴ이쓰인다. 이「ㅇ」이 쓰이는 것은 다음 體言의 初聲이 ㄱ인 것에 限한 것이므로 子音同化現象에서 나온 ㅇ이다.

e. 目的指定格

—르탕 —란형으로

이결탕=이결란 (이것이란)

저결탕=저결란 (저것이란)

나탕=나란 (나란)

과 같이 ㅇ을 ㄴ으로 바꾸어도 意味는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ㄴ原形이 ㅇ으로 俗音化 될것 같고 主로 聲調流麗作用을 하는 듯하다.

f. 引用格

책이에ㅇ (책이라고)

간뎡 (간다고)

오랭 (와라고)

와 같이 體言및 用言의 敘述形 終結語尾 —여, —다, —라, —저, —수다, —우다, —쿠다, —나, 等과, 疑問形 終結語尾—디야, —다, —시냐, —가, —키, —우까, —수까等, 그리고 命令形終結語尾 —라, —며서, 請誘形語尾 —주, —게等에 「ㅇ」이 添加되어 引用格을 만든다.

體言및 用言의 語幹+ 諸終結語尾 + 引用格ㅇ 의 形으로 이「ㅇ」도 標準語의 「-고」(-K-)와의 對應으로 봐서 羅列形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ㄱ의 音轉인듯 싶다. 이것도 過去の 事實을 引用할 때

는「ㄴ」으로 混用하고 未來의 事實을 論 때는「ㅇ」으로 똑똑 發音된다. 이도 또한 羅列形에서 考察한 바와 같다.

g. 與 同 格

책이경 붓이영 아사 오라. (책하고 붓하고 가져 와라.)

느영 나영 굶디 가게. (너와 나와 같이 가자.)

와 같이 -어+ㅇ型으로

一千이여 一萬이여 無數히 일고져 호사도 (月印 第一, 二七)

德이여 福이라 호놀 (動勳)

의 例에서 보는 接續助詞「어」에「ㅇ」이 添加된 것이다. 이「ㅇ」은 다른 音과 混用은 일이 없으며 主로 聲調流麗作用을 하는 것이다.

b. 比較 格

이것팜 저것팜 어느게 조너? (이것과 저것과 어느것이 좋으냐?)

그 사름팜 나팜 다르냐? (그자람과 나와 다르냐?)

와 같이 古語나 標準語의「-과, -와」에 該當하는 것으로 他音과 混用됨이 없다.

原辭에 ㅇ이 添加된 型으로 聲調流麗作用을 한다.

他道方言에도

一강(慶尙道) 一광(江原道) 一랑(全羅道) 一강(咸鏡道)等 類似한 것이 보인다.

以上 語尾活用 및 助詞의 考察을 要約하여 보면

첫째 音韻變化로 봐서

1. ㄴ이 原形이나 ㅇ으로 俗音化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敘述終結形 -ㅇ게

羅列形中, 過去의 行動羅列 -양, -영

意圖形의 過去意圖 一경

中斷形의 過去事實 一당

連用形 一ㅇ

目的指定格 一르탕

引用格의 過去事實 一잉

2. ㄱ→ㅇ의 音轉으로 여겨지는 것.

羅列形의 未來 方法羅列 一엇, 一양

意圖形의 未來意圖 一경

中斷形의 未來事實 一당

引用格의 未來事實 一잉

3. 聲調添尾素 ㅁ 添加된 ㅁ이 여겨지는 [ㅇ]

疑問終止形 一우강 一우짱 一쿠강

羅列形의 同時羅列 一몽 一명

意圖形 一고정

與同格 一엇

比較格 一짱

여기의 聲調添尾素 ㅇ은 앞으로 研究를 要할 問題인 것이다.

물게 意味 機能으로 봐서

1. ㄴ과 ㅇ이 同意인 것.

敘述終止形 一ㅇ게 = 一ㄴ게

連用形 一ㅇ = 一ㄴ

目的指定格 一르탕 = 一르탕

2. ㄴ은 過去 ㅇ은 未來를 나타내는 것.

羅列形의 順次羅列 一언 一안, 一엇 一양

意圖形 一전, 一정

中斷形 -단, 당

引用格 -인, -잉

3. 聲調流麗作用을 하는 것

疑問終止形 -수강 -우강 -쿠강

羅列形의 同時羅列 -명 -8

意圖形 -고정

與同格 -영

比較格 -광

나은 方向 또는 播屬 分간 곧 限定的 구실을 所有한 것 (李尙
事 音韻論研究 頁二六七) 이고 은 〇聲調를 流麗게 하며 ㄱ (〇의
原音) 은 未然的 限定的 強勢的인 어떤 구실을 하는 것 같은 바
研究할 問題다.

그 形態로 보면 原辭+〇형으로 있으나 言象은 한 덩어리의 語
尾로 認識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南方系 方言의 거의 共通의
인 事實같으며 現在 衰退해가는 過程인 樣 似다. 標準語에서는 이
語法關係를 보이는 「〇」의 原音에 母音을 덧붙여 發達하였거나 或
은 아주 脫落하였거나 하고 있다.

3. 形容詞其他에서

形容詞에 있어서는 主로 感覺的 形容에 -동 -동 형으로 쓰이
는데, 이는 標準語 -림에 對應되는 것 들로서 口의 俗音化로 聲
調流麗作用을 하는 듯 하며 其他는 原形이 그런것 같고 大略 위
에서 考察한 것들과 같으므로 여기서 詳論을 省略한다.

四. 附錄

本拙考를 始作하며 머뭇말에서 濟州方言의 開拓은 古典解讀의 完
璧에는 勿論 上古語 再構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것 임을 말했거

니와, 現在는 在來의 文獻學的 方法에 方言研究의 登場이 必要할 것이며 나아가 隣國語와의 比較方法이 要請되는 것이다. 이 小考를 막음에 있어 위에서 考察한 〇現象을 가지고 古典解讀에 어떤 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于先 생각나는 것으로 靑山別曲과 安民歌의 一句씩 만이라도 方言의 角度에서 新釋을 試圖해 보 고저 한다.

1. 靑山別曲 第六聯 『구조개』

노모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때 잘어리 랐다

의 「구조개」의 解讀은 諸學者들이 梁柱東教授의 註釋과 同意인 것 같다. 그의 麗謠箋註에 보면

구.. 「굴」牡蠣의 脫落(「조개」우에서의)

조개.. 「조개」의 俗綴

蛤 蜊 蟹 조개 (字會上二〇)

蛤 蜊 조개 (蒙俞篇)

와 같이 굴과 조개로 註解하고 있다. 金亨奎教授는 위와 大同한 註解에 또 「구조개」라는 조개의 一種이 있다고 한다. (古歌 註釋 P一九〇) 를 덧붙이고 있다.

勿論 이러한 굴과 조개로 註釋함이 可能할 수는 있으나 單一名 詞로 보는 것만 못할 것 같다.

이에 이 구조개는 單一名詞로 소라(螺)가 아닌가 生覺한다. 濟州方言에서 조개를 조경기 또는 조경이라 하고 소라를 구경기 또는 구 경이라 한다 함은 위에서 들었거니와 「구조개」가 「소라」임을 証明함은 이 方言「구경기」의 Primary word를 歸納하므로써 判明될 것이다. 위의 考察에서 濟州方言의 名사는 原辭에 〇이, 〇기 接

尾가 添加된 것들이 많음을 보았다. 오늘 거이 文獻語에서 밖에 그 形骸를 찾아 볼 수 없는 말들이 方言에서 이런 接尾辭를 덧붙여 그 語形의 安定을 스스로 圖謀하고 殘存하여 있음을 흔히 보는데 「구정기」도 이러한 語辭일 것이니 그 Primary word를 再構하여 붙은 妥當한 方法이라 하겠다.

「조개기」가 原形「조개」에다 ㅇ기 接尾辭가 添加되어 이루어진 것 처럼「구조개」에다 ㅇ기接尾를 붙이면「구조개기」라는 語辭를 假定할 수 있으니 이「구조개기」가 다음과 같은 音韻變化 過程을 거쳐「구정기」가 됐음을 推理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개 → 구조개 + ㅇ기 = 구조개기 → 구쪼개기

구조개 → 구조개 + ㅇ이 = 구조개이 → 구쪼[개]이
Umlaut現象

→ 구제앵기

→ 구정기

→ 구제앵이

→ 구정어

리 | 가 기 → ㅇ 默音化 hiatus現象

이러므로「구조개」는 濟州方言의 구정기 구정어 곧 標準語의 소라(螺)임을 알 것이다.

2. 安民歌의 『於冬是 去於丁』條

앞의「구조개」條는 名詞의 試釋이나 本條는 語尾活用으로 이루어 본 試釋이다.

在來의 解讀을 보면 小倉進平氏는「어디 가는뎡」으로 읽었고 梁柱東教授는「어디 갈며」로 註釋하였다. (全文割愛) 이 外에 新解讀으로 李 鐸教授의 것이 있다. 그는 우리말의 歷史的 音韻 變遷에 依하여 漢字古音이나 우리古語를 推定하였노라 해서「어뎡이 너어 뎡」이라 읽었다. (한글 ——四號 鄉歌新解讀) 李教授의 것은 注目할 新讀이나 漢字音이나 古語音 變遷의 綿密한 傍証 없이 簡單히

發表하였으므로 具體的인 發表를 기다려지는 바이다. 小倉氏 것은 梁教授의 精密한 考證으로 修正을 當한 셈이므로 結局 梁教授의 註釋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위의 解釋들을 볼때, 全體의 歌意가 未洽하고 順担지 못함을 느낄 뿐 아니라, 註釋에 規則性이 없다. 곧 小倉氏의 「가노명」은 「於」를 「노」로 읽음이 無理일 것이며, 梁教授의 「갈며」는 「於」를 「리」로 읽음이 無理일 것이다. 韓日 兩國語에 있어서 上代 漢字音表記의 共同性이 認定되는데 (崔欽培先生 還甲記念論文集 P二四二, 李尙寧博士 古代語의 形態論의 研究試圖에서의 統計) 同國語에서 「於」字를 「어, 어(長音表示)터, 리」等 多音에 不規則하게 썼을 理 없는 것이다.

그래서 筆者는 가-명(가-정)으로 읽어 버림이 어떨까 한다.

去는 訓借 「가」

於是 音借 「어」(長音表示)

丁은 音借 「명」(정)

이렇게 읽음은 다른條에서도 大部分 이렇게 읽고 있으므로 一히 傍證이 必要 없을 것이기 約한다.

여기 하나 問題될 것은 丁과 齊(며와 저)의 差異일 것이다. 梁教授는 그의 古歌研究에서, 「丁」은 「며 乃至 명」으로 抽象代名詞 「ㄷ」의 感嘆形이라 하고

西方念丁去賜里遣 願往生歌

去奴隱處毛冬乎丁 祭亡妹歌

吾衣修叱孫丁 隨喜功德歌

等의 「丁」이 그렇다 하여 現行語 「홀디 언명」形에 殘存해 있다 하였으며, 또 「齊」는 「저」로서 願望 請誘形으로 均如歌 末句에 添

內良齊, 爲白齊, 造物捨齊, 行齊, 去齊 等 慣用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念丁을 「시그정」으로, 곧 「명」으로 읽지 않고 「정」으로 읽음은 이상한 일이다.

그때서 생각을 요하는 것은 新羅時代의 文法意識에서 願望 請誘形 齊(저)와 抽象代名詞의 感嘆形 丁(더)의 區別을 특히 할 수 있었을까? 또 當時의 漢字음이 齊는 「저」이고 丁은 「명」이었을가의 問題이다. 李 瓘教授는 齊의 原音은 「ㄷ」으로 「ㄷ(斷)-던(剪)-떼-제-제」의 變遷을 하였고 丁의 音도 「ㄷ」이라 (한글-一四號 P-三, 一四)하여 齊와 丁이 共히 原音d-임을 推定하였다. 그러므로 齊 丁이 共히 d-音이었다면 願望 請誘形 「저」와 抽象代名사의 感嘆形 「더」가 當時 混用되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이 混用한 例들은 보면 吏讀의 「爲丁」이 願望 請誘形 「후정」일 것이니 「후명」과 混用하였고

오늘 朝集을 因하여 얼굽저하고(月印二)

홍시의 發行후저 후노다(杜諺)

부데스바히시과며 願후노니(楞嚴經二)

佛業에 들과며시니(永嘉集下)

等 「더」와 「저」의 混用이 보인다. 이따므로 「去於丁」은 「가-명」 「가-정」으로 읽을 수 있다 하겠다. 그 意味는 濟州方言의 意圖形 「가-명」과 一致함을 보게 되니 곧 轉明되는 것이다. 濟州方言 意圖形의 變遷課程이

가-명 → 가-정 → 가-제 ○ → 가-경(現行方言)으로 推定될 것이니 「於 去是 去於丁」은 濟州方言으로 「어디 가-정」, 標準語로 「어디 가자고, 어디 가려고」가 될 것이다.

高麗語나 李朝語는 中鮮地方의 方言일 것이며 新羅語는 慶州中心의 方言일 것이다. 慶州中心語는 慶尙道方言의 上代語일 것이다. 石宙明氏 統計에 依하면 濟州方言이 慶尙道方言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의 濟州島方言集) 그런데 慶尙道方言보다도 濟州方言은 그 地理的 關係로 中鮮地方語에 陶汰當함이 적었을 것이니 新羅語와 매우 가깝다 할 수 있다. 이에서 濟州方言이 擲歌解讀에 直接 登場이 必要하지 않을까 싶어 이런 試釋을 해 본 것이다.

이 試論은 資料의 未備와 그 檢討의 소홀로 正確性이 없음을 自認하는 바이나, 앞으로 各道方言과 隣國語와의 精密한 研究를 加한다면 좋은 成果가 일우어지리라 믿어지는바서 우머난 외란한 所致임을 附言하는 바이다.

(筆者國文學科 四年)

金 思 燁 著

李朝時代の 歌謠研究

菊版 462面

定價 2.500圓

大 洋 出 版 社 發 行